논어 14편 헌문 41장 · 원문·풀이

子路宿於石門。晨門曰：「奚自？」子路曰：「自孔氏。」曰：「是知其不可而爲之者與？」

독음 · 자로숙어석문 신문왈 해자 자로왈 자공씨 왈 시지기불가이위지자여

쉬운 풀이(요약) · 석문의 문지기는 공자를 안 될 줄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이라고 알아보았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路 길 로 로 / 宿 잘 숙 숙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

石 돌 석 석 / 門 문 문 문 / 晨 샛별 신 신 / 曰 가로 왈

奚 어찌 해 해 / 自 스스로 자 / 孔 구멍 공 공 / 氏 성 씨 씨

是 이 시 시 / 知 알 지 / 其 그 기 / 不 아닐 불

可 옳을 가 가 / 而 말이을 이 / 爲 할 위 / 之 갈 지

者 놈 자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